

전문 포장기술인이라는 자공심으로 노력할터

조명진 / (주)남경 생산본부 주임

(사)한국포장협회가 포장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0월 14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총 11주간 실시한 제4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주)남경 조명진 주임이 1백점 만점에 92.9점을 획득, 최우수 수료자의 영예를 안았다.



조명진 주임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에 매우 영광스럽다”며 “포장기술관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선창 협회장님과 (주)남경 사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남경에 입사한 이후 제조부 구매 자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 주임은 회사의 권유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수강하게 됐다.

“흥미로운 기분으로 시작했던 초기와는 달리, 11주간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낯선 용어들을 접할 때면 막막하기도 했다”는 그는 통신교육을 통해 포장기술에 난해하고 복잡한 수학적, 물리적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의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포장개요 및 지류포장, 플라스틱 포장재, 금속포장(제관) 및 유리병 등 각 11권

으로 이뤄져 있으며, 매 주 각 교재에 해당하는 레포트를 작성, 제출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조명진 주임은, 매주 좀 더 충실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월간 포장계를 비롯한 각종 포장전문자료를 정독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통신교육 교재외에 포장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고 전하면서 “통신교육에도 앞으로는 업그레이드 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명진 주임은 (사)한국포장협회가 중심이 되어 포장업계 기술자원과 인력자원에 좀 더 많은 투자와 홍보가 이루어져 포장기술인들이 자공심을 갖고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얻은 포장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포장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조명진 주임.

자공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는 조명진 포장기술관리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